

---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 시장에서  
한,중 주요 수출품목간 경쟁현황 조사

---

2007.12.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 차 례

---

[요약]	i -iv
1. 조사개요 .....	1
2.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 .....	2
3. 교역동향 .....	4
4. 칠레의 대한, 대중 양허비교 .....	5
5.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9
6. 결론 및 시사점 .....	11

---

## [요 약]

- 한-칠레 FTA 발효('04.4.1) 후,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에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칠레의 FTA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칠레시장 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가격경쟁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칠레는 우리나라에 대해 품목수 기준 44.6%의 상품을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74.6%의 상품을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에 따라, 칠레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과 중국산 제품 간 양허수준 차이가 발생
- 중-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살펴보면, 중국의 對칠레 수출 증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도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음
  - 중-칠레 FTA 발효 후에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발효 전 대비 66.9%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對칠레 수출 역시 발효 전 대비 37.4% 증가한 4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호조세를 지속
-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 중 중국보다 장기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 일부는 중-칠레 FTA 발효 후, 일부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주로 전기전자,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류, 광물 및 비철금속,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경합하고 있으며, 칠레시장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관세철폐 일정이 늦은 품목들 가운데, 중-칠레 FTA 발효 후 중국이 칠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 밸브,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등인 것으로 파악

<우리가 중국보다 불리하게 양허를 받은 품목 중 칠레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품목>  
(단위: %)

품목명	HS Code	기준 관세율	상대국	국가별 양허수준	현재 관세율(%)	칠레시장 내 점유율비교(%)		
						발효전2년	발효전1년	발효후1년
자동세탁기	845011	6	한국	제외	6	56.8	31.4	27.0
			중국	즉시/10년/제외	0/4.8/6	14.2	17.6	39.7
동축케이블	854420	6	한국	5년	2	11.4	19.6	5.5
			중국	즉시/5년/10년	0/3.6/4.8	12.9	11.1	24.9
밸브 등	848180	6	한국	13년 <sup>1)</sup>	6	1.2	5.4	1.7
			중국	즉시/제외	0/6	18.9	19.0	25.3
진공청소기	850910	6	한국	10년	3.8	16.3	11.6	3.1
			중국	즉시	0	18.9	19.0	25.3
공기조절기	841510	6	한국	즉시/5년	0/2	18.6	10.3	9.1
			중국	즉시	0	58.7	76.6	77.1
플라스틱제품	392690	6	한국	5년	2	1.6	1.5	1.0
			중국	즉시/5년	0/3.6	20.5	23.2	26.7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직물	540761	6	한국	5년	2	19.8	12.7	3.8
			중국	즉시/5년/10년	0/3.6/4.8	51.2	58.9	70.3

1) 13년 철폐는 협정 발효 후 7년째 되는 해 1월 1일부터 관세가 균등 철폐되는 비선형 방식

- 칠레의 對우리나라, 對중국 관세철폐일정을 비교해보면, 전체 양허비율은 품목수 기준 우리나라가 98.8%, 중국은 98.1%로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수준이 조금 높았지만, 즉시철폐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44.6%인 반면, 중국이 74.6%에 달해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속도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었음

칠레의 對한국, 對중국 상품양허 비교

(품목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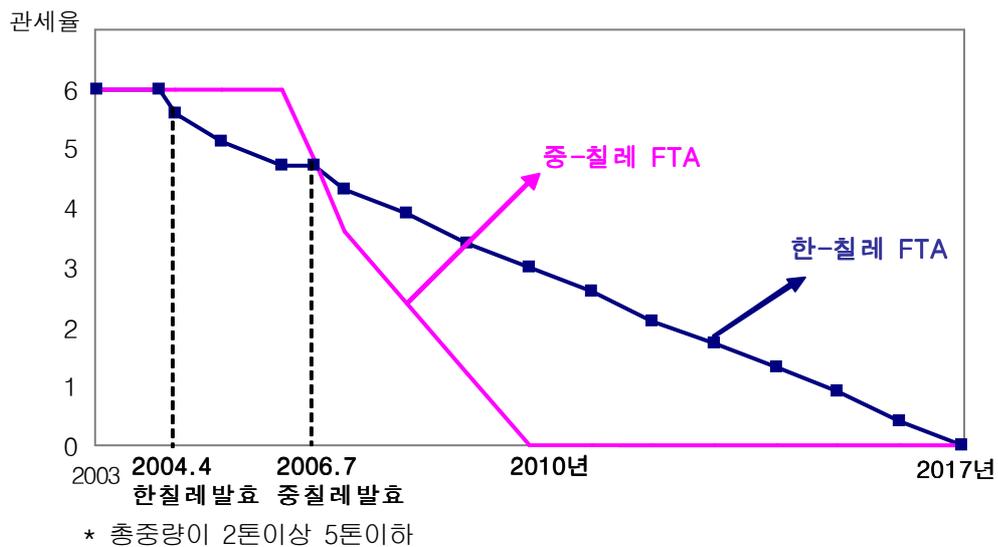
구분	對한국			對중국			
	전체	공산품	농수산물	전체	공산품	농수산물	
10년내 철폐	즉시 철폐	<b>3,528(44.6)</b>	2,178(33.6)	1,350(94.6)	<b>5,891(74.6)</b>	4,535(70.0)	1,356(95.0)
	기간철폐 (5~10년)	3,989(50.5)	3,973(61.4)	16( 1.1)	1,859(23.5)	1,813(25.5)	46( 3.2)
	소계	7,517(95.1)	6,151(95.0)	1,366(95.7)	7,750(98.1)	6,348(98.0)	1,402(98.2)
양허제외	96( 1.2)	35(0.5)	61(4.3)	152(1.9)	127(2.0)	25(1.8)	
총 양허수준	<b>7,806(98.8)</b>	6,440(99.5)	1,366(95.7)	<b>7,750(98.1)</b>	6,348(98.0)	1,402(98.2)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 분석

\* ( )내는 비중(%)임.

-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총중량이 2톤이상 5톤이하)의 경우 칠레는 우리나라에 13년 철폐, 중국에는 5년 철폐로 각기 다르게 양허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2017년이 되어서야 관세가 모두 철폐되게 되는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

칠레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비교



- o 이에 따라 칠레의 총 양허 대상품목(7902개) 가운데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17.8%인 1,406개인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41.7%인 3,298개로 파악

2007년 칠레시장에서 한,중간 품목별 관세율비교

(단위: 개,%)

관세율 비교	품목수	비중
한국<중국 (한국 유리)	1,406	17.8
한국>중국 (중국 유리)	3,298	41.7
한국=중국 (동등)	3,198	40.5
합계	7,902	100.0

- o 이처럼 중-칠레 FTA가 한-칠레 FTA보다 2년 이상 늦게 발효되었는데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이유는, 중국이 칠레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시장을 개방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례로 농수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칠레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75.6%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95.6%에 이르고 있으며, 농수산품 양허제외 비율도 우리나라는 총 농수산품의 22.5%인 384개를 양허제외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총 농수산품의 4.3%인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를 제외

한국, 중국의 對칠레 상품양허 비교

(품목수, %)

구 분	한국의 對칠레			중국의 對칠레		
	전 체	공산품	농수산품	전 체	공산품	농수산품
10년내 철폐	10,823(96.1)	9,531(99.8)	<b>1,292(75.6)</b>	7,336(97.2)	6,235(97.4)	<b>1,101(95.6)</b>
양허제외	405( 3.6)	21( 0.2)	<b>384(22.5)</b>	214( 2.8)	164( 2.6)	<b>50( 4.3)</b>
총 양허수준	10,856(96.4)	9,531(99.8)	<b>1,292(75.6)</b>	7,336(97.2)	6,235(97.4)	<b>1,101(95.6)</b>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 분석

- o 결론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향후 FTA 체결 시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농수산품을 포함한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 o 또한 FTA 비체결국보다 FTA에 따른 독점적인 시장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조속한 발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1.

## 조사개요

- 한-칠레 FTA 발효('04.4.1) 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에도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칠레의 FTA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칠레 시장 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가격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칠레 FTA는 2004년 11월 18일 양국 정상외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0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2005년 10월 타결되어 2006년 7월 1일 발효됨
- 칠레는 우리나라에 대해 품목수 기준 44.6%의 상품을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74.6%의 상품을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에 따라, 칠레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과 중국산 제품 간 양허수준 차이가 발생
  - 칠레의 총 양허 대상품목(7902개) 가운데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10.1%인 800여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3,904개로 49.4%를 차지

### 2007년 칠레시장에서 한,중간 품목별 관세율비교

(단위: 개,%)

관세율 비교	품목수	비중
한국<중국 (한국 유리)	1,406	17.8
한국>중국 (중국 유리)	3,298	41.7
한국=중국 (동등)	3,198	40.5
합계	7,902	100.0

- 따라서 비록 협정 발효시점은 한-칠레 FTA가 중-칠레 FTA보다 2년 정도 앞섬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세철폐 일정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현황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됨

## 2.

##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

### □ 상품 양허

- 중국은 칠레에 대해 총 7,550개(HS 8단위) 품목 중 7,336개(97.2%)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 칠레는 중국에 대해 총 7,902개(HS 8단위) 품목 중 7,750개(98.1%)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

### 중-칠레 FTA의 상품분야 양허 개요

(품목 수)

	관세철폐 스케줄					예외 품목	계
	즉시철폐	2년간 균등철폐	5년간 균등철폐	10년간 균등철폐	소계		
중국의 對칠레	2,806 (37.2)	1,947 (25.8)	973 (12.9)	1,610 (21.3)	7,336 (97.2)	214 (2.8)	7,550 (100.0)
칠레의 對중국	5,891 (74.6)	-	1,048 (13.3)	811 (10.3)	7,750 (98.1)	152 (1.9)	7,902 (100.0)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 분석

\* ( )내는 비중(%) 임.

### <농수산물>

- 중국은 농수산물 총 1,151개 품목 중 1,101개(95.7%)에 대해 향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50개(4.3%) 품목은 민감 품목으로서 철폐 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일정은 즉시철폐가 19.1%에 불과하고,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들은 1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음.
- 칠레는 1,427개 품목 중 95.0%인 1,35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총 1,402개(98.2%)에 대해 향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25개(1.8%)에 불과

중-칠레 FTA의 농수산물\* 양허 내용

(품목 수)

	관세철폐 스케줄					예외 품목	계
	즉시철폐	2년간 균등철폐	5년간 균등철폐	10년간 균등철폐	소계		
중국의 對칠레	220 (19.1)	245 (21.3)	268 (23.3)	368 (32.0)	1,101 (95.7)	50 (4.3)	1,151 (100.0)
칠레의 對중국	1,356 (95.0)	-	43 (3.0)	3 (0.2)	1,402 (98.2)	25 (1.8)	1,427 (100.0)

주) ( )내는 비중(%),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 분석

\*농수산물은 HS 01류~24류

<공산품>

- 공산품에서 중국은 총 6,399개 품목 중 2,586개(40.4%)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향후 10년 내 6,235개(97.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164개 품목(2.6%)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칠레는 총 6,475개 품목 중 4,535개(70.0%)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등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은 6,348개(98.0%)이고, 양허제외 품목은 127개(2.0%)임.

중-칠레 FTA의 공산품\* 양허 내용

(품목 수)

	관세철폐 스케줄					예외 품목	계
	즉시철폐	2년간 균등철폐	5년간 균등철폐	10년간 균등철폐	소계		
중국의 對칠레	2,586 (40.4)	1,702 (26.6)	705 (11.0)	1,242 (19.4)	6,235 (97.4)	164 (2.6)	6,399 (100.0)
칠레의 對중국	4,535 (70.0)	-	1,005 (15.5)	808 (12.5)	6,348 (98.0)	127 (2.0)	6,475 (100.0)

주) ( )내는 비중(%).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을 분석한 내용임

\* 공산품은 HS 25~97류

### 3.

### 교역동향

- 칠레는 우리나라의 FTA 최초 체결대상국으로,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증가율은 협정 발효 전 약 5억 2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발효 3년 후 현재, 발효 전 대비 무려 3.5배 증가한 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의 수입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칠레에 승용차, 무선전화기, 전기전자 등을 수출하며 동제품, 동광,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짐

#### 한-칠레 FTA 발효 후 한국의 對칠레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발효전1년 (‘03.4-’04.3)	발효후3년 현재 (‘06.4-’07.3)	배수
<b>수출</b>	<b>524</b>	<b>1,823</b>	<b>3.5</b>
승용차	135	395	2.9
무선전화기	24	112	4.7
칼라TV	7	27	3.9
<b>수입</b>	<b>1,328</b>	<b>4,089</b>	<b>3.1</b>

- 또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서 2006년 칠레와 중국 간 교역액은 8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은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
- 칠레는 중국에 대해 주로 광물, 목재 등 원재료를, 중국은 칠레에 섬유류, 생활용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칠레가 중국에 대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중-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발효전대비 66.9%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對칠레 수출 역시 발효전대비 37.4% 증가한 4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호조세를 지속

## 한, 중국의 對칠레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별	발효전 2년 (‘04.7-’05.6)		발효전 1년 (‘05.7-’06.6)		발효후 1년 (‘06.7-’07.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한국	909 (53.6)	1,879 (30.5)	1,284 (41.2)	2,655 (41.3)	2,142 (66.9)	3,928 (47.9)
중국	2,170 (51.3)	4,117 (82.2)	2,974 (37.0)	4,309 (4.6)	4,086 (37.4)	7,881 (82.9)

자료: WTA, ( )는 증가율

### 4. 칠레의 對한,對중 양허 비교

- 한-칠레 FTA와 중-칠레 FTA에서 칠레의 상품양허 일정을 비교해 보면, 발효시점은 비록 한-칠레 FTA가 한-중 FTA보다 2년 정도 앞서지만,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가 훨씬 단시간에 이뤄지고 있어, 칠레 시장에서의 관세철폐 선점 효과는 중국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한-칠레 FTA에서 칠레는 우리나라에 대해 전체 품목 수 98.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는데, 이 중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44.6%이며, 나머지는 5년, 7년, 10년, 13년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
- 중-칠레 FTA에서 칠레는 중국에 대해 전체 품목 수 98.1%의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철폐 비율과 비슷하나, 그 일정을 보면 74.6%의 품목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대부분 품목이 발효 즉시 철폐됨

### 칠레의 對한국, 對중국 상품양허 비교

(품목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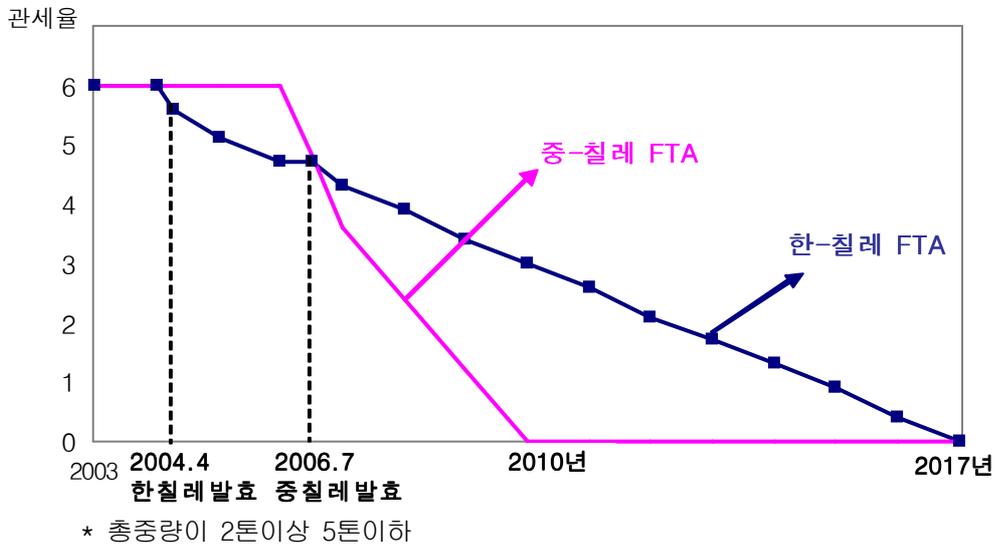
구 분		對한국			對중국		
		전 체	공산품	농수산물	전 체	공산품	농수산물
10년	즉시 철폐	<b>3,528(44.6)</b>	2,178(33.6)	1,350(94.6)	<b>5,891(74.6)</b>	4,535(70.0)	1,356(95.0)

내 철폐	5년간 균등철폐	2,450(31.0)	2,450(37.8)	-	1,048(13.3)	1,005(15.5)	43( 3.0)
	7년간 균등철폐	20( 0.3)	20(0.31)	-	-	-	-
	10년간 균등철폐	1,519(19.2)	1,503(23.2)	16( 1.1)	811(10.3)	808(10.5)	3( 0.2)
	소 계	7,517(95.1)	6,151(95.0)	1,366(95.7)	7,750(98.1)	6,348(98.0)	1,402(98.2)
13년간 균등철폐		289( 3.7)	289( 4.5)	-	-	-	-
양허 제외		96( 1.2)	35( 0.5)	61( 4.3)	152(1.9)	127( 2.0)	25( 1.8)
합 계		7,902(100)	6,475(100)	1,427(100)	7,902(100)	6,475(100)	1,427(100)

\* ( ) 내는 비중(%)임.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을 분석한 내용임

- o 따라서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총중량이 2톤이상 5톤이하)의 경우 칠레는 우리나라에 13년 철폐, 중국에는 5년 철폐로 각기 다르게 양허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2017년이 되어서야 관세가 모두 철폐되게 되는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칠레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비교



- o 이처럼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이유는 칠레가 우리나라를 중국보다 더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칠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우리나라의 칠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도 짧기 때문임

-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 즉시철폐 외에 5년에서 16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는 대신, 중국은 칠레에 대해 즉시철폐, 2년 또는 5년간 균등철폐 등 비교적 단기간에 철폐
-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중국은 칠레에 대해 95.6%의 품목에 대해 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지만, 우리나라는 칠레에 75.6%의 품목만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
- 또한 對칠레 농수산품의 양허제외 비율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 총 농수산품의 22.5%인 384개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를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칠레에게 농수산품 총 품목의 4.3%정도인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를 제외하고 있음

한국, 중국의 對칠레 상품양허 비교

(품목 수, %)

	구 분	한국의 對칠레			중국의 對칠레		
		전 체	공산품	농수산품	전 체	공산품	농수산품
10년 내 철폐	즉시 철폐	9,791(86.9)	9,377(98.2)	414(24.2)	2,806(37.2)	2,586(40.4)	220(19.1)
	2년간 균등철폐	-	-	-	1,947(25.8)	1,702(26.6)	245(21.3)
	5년간 균등철폐	709( 6.3)	117( 1.2)	592(34.6)	973(12.9)	705(11.0)	268(23.3)
	7년간 균등철폐	37( 0.3)	1( 0.0)	36( 2.1)	-	-	-
	9년간 균등철폐	1( 0.0)	-	1( 0.1)	-	-	-
	10년간 균등철폐	285( 2.5)	36( 0.4)	249(14.6)	1,610(21.3)	1,242(19.4)	368(32.0)
	소 계	10,823(96.1)	9,531(99.8)	<b>1,292(75.6)</b>	7,336(97.2)	6,235(97.4)	<b>1,101(95.6)</b>
2011년 이후 9년간 균등철폐	12( 0.1)	-	12( 0.7)	-	-	-	
할당 설정	21( 0.2)	-	21( 1.2)	-	-	-	
양허 제외	405( 3.6)	21( 0.2)	<b>384(22.5)</b>	214( 2.8)	164( 2.6)	<b>50( 4.3)</b>	
합 계	11,261(100)	9,552(100)	1,709(100)	7,550(100)	6,399(100)	1,151(100)	

\* ( )내는 비중(%)임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을 분석한 내용임

- o 칠레시장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 제품 간 경합관계를 살펴보면 우리의 對칠레 주요수출품인 자동차, 석유제품 등은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나 전기전자, 기계류,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등의 품목군은 경합관계임

- 2006년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 품목군은 석유제품, 자동차 및 기타운송기기, 전기전자,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등이며, 중국은 섬유류, 전기전자, 기계류, 생활용품 등임
- 칠레시장에서 양국의 경합 품목군: 전기전자(85류), 기계류(84류), 플라스틱 및 고무(39,40류), 섬유류(54~56,59류) 등임

한국의 對칠레 수출 150대 품목(HS 6단위)

(백만 달러)

품목군	HS 분류	수출금액	비중(%)	품목수
전체 수출		1,640	100.0	
석유제품	27류	515	31.4	27
자동차 및 운송기기	86,87류	497	30.3	20
전기전자	85류	201	12.3	25
플라스틱, 고무	39,40류	185	11.3	29
기계류	84류	75	4.6	32
광물 및 비철금속	72~74류	54	3.3	14
섬유류	54~56,59류	24	1.4	9
화학공업제품	25,28~30,34~35,37류	24	1.4	12
광학기기 등	90류	4	0.2	4
생활용품	48,64,68,	2	0.2	4
어류	03류	1	0.1	1
소 계		1,581	96.4	150

자료 : WTA

중국의 對칠레 수출 150대 품목(HS 6단위)

(백만 달러)

품목군	HS 분류	수출금액	비중(%)	품목수
전체 수출		3,487	100.0	
섬유류	54,61~63류	605	17.4	37
생활용품	42,64,65,69,91,94~95류	538	15.4	38
전기전자	85류	436	12.5	29
기계류	84류	348	10.0	12
광물 및 비철금속	72~74,76,82류	110	3.2	13
플라스틱, 고무	39,40류	81	2.3	8
운송기기(자동차제외) 및부분품	87,89류	68	1.9	6
광학기기 등	90류	37	1.1	3
화학공업제품	28~30류	29	1.8	4
소 계		2,252	64.6	150

자료 : WTA

## 5.

##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경합품목군에 대한 칠레의 관세철폐 일정을 살펴보면, 동일품목군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철폐가 중국보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중 12.3%, 11.3%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와 플라스틱, 고무제품에 대해, 칠레는 중국에 대해서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5년~13년 균등철폐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인 섬유류의 경우, 칠레는 중국에 대해 21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우리나라에 대해선 절반 이상의 품목이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있음

## 〈한, 중 경합품목군에 대한 칠레의 관세철폐 일정〉

품목구분	구 분	對한국		對중국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전기전자 (HS 85류)	즉시 철폐	320	61.4	508	97.5
	5년간 균등 철폐	156	29.9	6	1.2
	7년간 균등철폐	1	0.2	-	-
	10년간 균등철폐	36	6.9	6	1.2
	13년간 균등철폐	8	1.5	-	-
	양허 제외	-	-	1	0.2
	소 계	521	100.0	521	100.0
플라스틱, 고무 (HS 39,40류)	즉시 철폐	23	5.8	320	80.8
	5년간 균등 철폐	135	34.1	2	0.5
	7년간 균등철폐	2	0.5	-	-
	10년간 균등철폐	198	50.0	50	12.6
	13년간 균등철폐	38	9.6	-	-
	양허 제외	-	-	24	6.1
	소 계	396	100.0	396	100.0
	즉시 철폐	101	13.6	703	94.4

기계류 (HS 84류)	5년간 균등 철폐	555	74.5	1	0.1
	7년간 균등철폐	3	0.4	-	-
	10년간 균등철폐	49	6.6	25	3.4
	13년간 균등철폐	13	1.7	-	-
	양허 제외	24	3.2	16	2.2
	소 계	745	100.0	745	100.0
광물 및 비철금속 (72~74류)	즉시 철폐	56	18.2	204	66.4
	5년간 균등 철폐	177	57.7	42	13.7
	7년간 균등철폐	6	2.0	-	-
	10년간 균등철폐	46	15.0	54	17.6
	13년간 균등철폐	12	3.9	-	-
	양허 제외	10	3.3	7	2.3
소 계	307	100.0	307	100.0	
섬유류 (HS 54, 55, 56, 58, 59, 60류)	즉시 철폐	38	9.3	69	16.8
	5년간 균등 철폐	112	27.3	266	64.9
	10년간 균등철폐	225	54.9	54	13.2
	13년간 균등철폐	35	8.5	-	-
	양허 제외	-	-	21	5.1
	소 계	410	100.0	410	100.0

- 칠레의 관세철폐일정을 볼 때, 우리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이 우리보다 관세철폐기간이 짧은 품목은 자동세탁기, 공기조절기 등 기계류와 진공청소기, 동축케이블 등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및 타이어,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등임
  - 해당 품목들은 칠레가 우리나라에 양허 제외를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였거나 혹은 양국 모두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중국에 대해 더 짧은 철폐기간을 두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수출품목 중 관세철폐 일정이 중국보다 장기간인 품목이 對칠레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 정도임
- 이에 따라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우리나라가 발효직전 4.0%에서 발효 후 5.7%, 중국이 9.2%에서 10.9%로 각각 증가하였음. 하지만 우리가 칠레시장에서 중국보다 장기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 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 공기조절기,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등은 발효 후 우리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감소세를 보임

<한·중 주요 경합품목<sup>1)</sup> 중 우리가 중국보다 불리하게 양허를 받은 품목>

(단위: %)

품목명	HS Code	기준 관세율	상대국	국가별 양허수준	현재 관세율	칠레시장 내 점유율비교(%)		
						발효전2년	발효전1년	발효후1년
자동차세탁기	845011	6	한국	제외	6	56.8	31.4	27.0
			중국	즉시/10년/제외	0/4.8/6	14.2	17.6	39.7
타이어 (버스, 화물차용)	401120	6	한국	13년 <sup>2)</sup>	6	9.1	7.7	7.8
			중국	10년	4.8	22.8	25.1	27.4
타이어 (승용차용)	401110	6	한국	13년 <sup>2)</sup>	6	15.9	11.4	12.6
			중국	10년	4.8	21.1	28.0	16.2
철, 비합금의 평판압연제품	721049	6	한국	5년	2	1.7	4.2	5.6
			중국	즉시	0	0.0	1.9	27.1
동축케이블	854420	6	한국	5년	2	11.4	19.6	5.5
			중국	즉시/5년/10년	0/3.6/4.8	12.9	11.1	24.9
밸브 등	848180	6	한국	13년 <sup>2)</sup>	6	1.2	5.4	1.7
			중국	즉시/제외	0/6	18.9	19.0	25.3
진공청소기	850910	6	한국	10년	3.8	16.3	11.6	3.1
			중국	즉시	0	18.9	19.0	25.3
공기조절기	841510	6	한국	즉시/5년	0/2	18.6	10.3	9.1
			중국	즉시	0	58.7	76.6	77.1
철강제품	732690	6	한국	10년	3.8	0.3	1.2	5.9
			중국	즉시	0	58.7	76.6	77.1
플라스틱제품	392690	6	한국	5년	2	1.6	1.5	1.0
			중국	즉시/5년	0/3.6	20.5	23.2	26.7
의약품	300490	6	한국	5년/10년	2/3.8	0.5	0.5	0.3
			중국	즉시/5년	0/3.6	3.1	2.0	1.2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직물	540761	6	한국	5년	2	19.8	12.7	3.8
			중국	즉시/5년/10년	0/3.6/4.8	51.2	58.9	70.3
전체			한국			3.5	4.0	5.7
			중국			8.3	9.2	10.9

1) 한-중간 주요 경합품목은 한국, 중국의 각각 대칠레 150대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 중 서로 중복되는 품목으로 선정

2) 13년 철폐는 협정 발효 후 7년째 되는 해 1월 1일부터 관세가 균등 철폐되는 비선형 방식

## 6. 결론 및 시사점

- 중-칠레 FTA 발효 후, 중국의 對칠레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도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음
  - 발효 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발효전대비 66.9%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對칠레 수출 역시 발효전 대비 37.4% 증가한 4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호조세를 지속

- 하지만 칠레 수입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보다 관세철폐기간이 긴 품목들 가운데는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품목이 있었음
  - 이는 칠레가 동일 품목에 대해 중국에게는 관세철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우리나라보다 중국에게 더 빨리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들로서, 중-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감소추세를 보인 품목은 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 벨브, 플라스틱 제품, 폴리에스테르직물 등이 있음
- 이처럼 시장 내 가격경쟁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세철폐와 관련해, 칠레가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을 우리보다 단기간에 잡은 이유는, 중국의 對칠레 관세철폐 일정 역시 우리나라의 對칠레 관세철폐 일정보다 상대적으로 빨랐기 때문임
  -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중국의 對칠레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95.6%인 반면,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對칠레 비율은 75.6%에 불과했으며, 농수산품 양허제외 비율도 우리나라는 칠레에 총 농수산품의 22.5%인 384개를 양허제외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칠레에게 총 농수산품의 4.3%인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를 제외함
- 결론적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 향후 FTA협상 시 상대국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농수산물을 포함한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
- 또한 FTA를 통해 비체결국보다 관세 및 비관세상 특혜 등의 독점적인 시장 선점효과를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이루어져야 함